



이상길
임업연구원 산림생물과
해충관리연구실

재주나방류는 분류학적으로 나비목 재주나방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에 100여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수목을 가해하는 해충으로는 46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경수목의 잎을 식해하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나무 생장을 저해하는 해충만도 10여종 이상이 알려져 있는 중요한 해충군이다. 우선 재주나방류 중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여름철에 대면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Phalera 속 해충 3종에 대해 소개코자 한다.

1. 참나무재주나방 *Phalera assimilis*(Bremer et Grey)

밤나무, 유자, 배나무, 붉가시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의 잎을 가해하나 특히 참나무류에 피해가 심하다. 해에 따라 돌발적으로 대발

생하는 해충으로 유충이 모여 살면서 한가지씩 잎을 모조리 식해하여 경관을 해친다.

성충의 날개를 편 길이는 암컷이 60~75mm, 수컷이 45~50mm이며 앞날개 끝부분에 황백색 무늬가 있으며 뒷날개는 회갈색이다. 노숙유충의 몸길이는 55mm정도이고 몸은 검은 색으로 등갈색 줄을 갖고 있으며, 각마다 중앙부에 여러개의 긴 털이 나 있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땅속에서 번데기로 월동하고 6~8월에 성충이 출현하여 잎 뒷면에 무더기로 알을 낳는다. 유충은 7~10월에 볼 수 있으며 8월~9월 중순에 많은 피해를 준다. 유충은 무더기로 모여서 가해하고 몸의 끝부분을 들고 있는 습성이 있다. 노숙한 유충은 땅으로 내려와 땅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어 월동한다.

방제는 유충이 모여살고 있는 가지를 꺾어 포살하거나 피해 초기에

디프수화제 또는 메프수화제(유제)를 잎에 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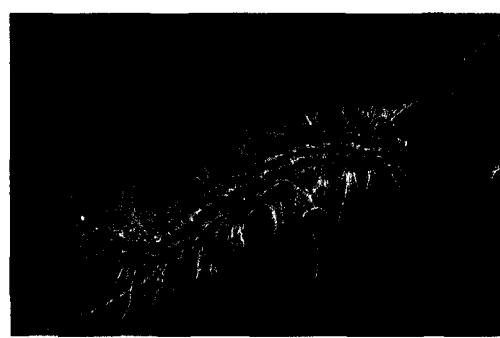
2. 먹무늬재주나방 *Phalera flavescens*(Bremer et Grey)

벚나무, 자도나무, 살구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느릅나무, 벼드나무, 미류나무,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매실나무, 복사나무, 산사나무, 비파나무, 오리나무류 등 활엽수의 잎을 가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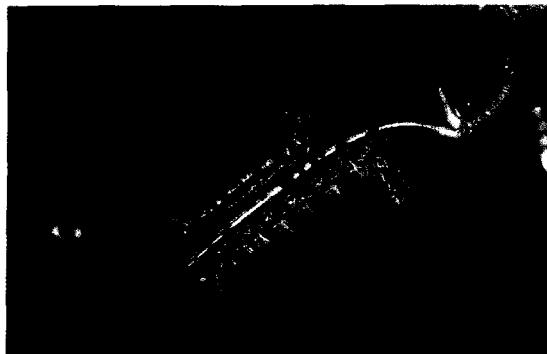
어린유충은 모여 살면서 잎을 식해하고 노숙하면 분산하며 휴식할 때는 몸앞·뒷부분을 드는 습성이 있다.

해에 따라 대발생하는 해충으로 1968년 중부지방, 1990년과 1996년에 제주도에서 대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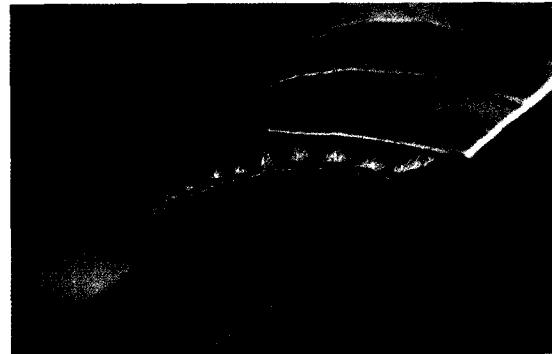
성충의 날개를 편 길이는 암



▲참나무재주나방유충(상수리나무)



▲먹무늬재주나방 유충(산사나무)



▲먹무늬재주나방 노숙유충(빛나무)

컷이 55~59mm, 수컷이 46~54mm이며 앞날개가 회백색이고 기부에 검은 무늬가 있다. 유충은 처음에는 적갈색이나 노숙하면 몸길이가 52mm 정도되고 몸은 자흑색을 띠며 각 마디 사이는 자적색이고 각 마디 중앙부에 황백색의 긴털이 밀생되어 있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얇은 땅 속에서 번데기로 월동하고 7~8월에 성충이 출현하여 잎 뒷면에 200개 정도의 알을 규칙적으로 낳는다. 부화유충은 한 개의 잎 뒷면에 모여서 열을 지어 잎을 식해하나 성장하면서 가는 가지에 모여살면서 가지 끝의 잎부터 식해하고 성장하면 기부로 이동하여 식해한다. 노숙한 유충은 9월중순~10월에 실을 토하여 땅으로 내려와 땅속으로 들어가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어 월동한다.

방제는 유충이 모여살고 있는 잎 또는 가지를 꺾어 포살하거나 피해초기에 디프수화제, 디디브이피유제 또는 메프수화제(유제)를 잎에 살포한다.

3. 붉은머리재주나방 *Phalera minor* Nagano

밤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종가시나무 등의 잎을 가해한다.

위에 기술한 2종과 같이 유충이 모여 살면서 한가지씩 잎을 모조리 식해하여 경관을 해친다.

성충의 날개를 편 길이는 암컷이 26~28mm, 수컷이 21~25mm이며 앞날개 끝부분에 황백색 무늬가 있으며 뒷날개는 회갈색이다. 노숙유충의 몸길이는 50mm정도이고 “참나무재주나방”과 유사하나 머리

가 적색인 것이 특징이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땅속에서 번데기로 월동하고 7~8월에 성충이 출현하여 잎 뒷면에 무더기로 알을 낳는다. 보통 8월상순~중순에 부화하고 8월중순~9월상순에 피해가 심하다. 유충은 노숙할 때까지 모여사는 생활을 하며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여러 마리가 동시에 몸을 흔드는 습성이 있다. 노숙한 유충은 땅으로 내려와 땅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어 월동한다.

방제는 상기 2종과 같이 유충이 모여살고 있는 가지를 꺾어 포살하거나 피해초기에 디프수화제 또는 메프수화제(유제)를 잎에 살포한다. 조경수



◀집단적으로 모여 가해하는 붉은머리재주나방 유충(상수리나무)

▼붉은 머리재주나방 유충(상수리 나무)

